

	광복회	보도자료	민족정기 선양 통일조국 축성 자존품위 제고
			담당부서 (담당자)

* 보도시점: **대한민국 105년** 8월 1일(화) 오후 3:00 이후

광복회, ‘대한민국 정체성’ 행사 잇따라 개최
‘대한민국 105년’ 대형 전광판 제막
10일, 국회서 ‘대한민국 정체성 대토론회’도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제78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달아 기획, 개최한다.
- 오는 8월 3일(목) 오전 11시 광복회관 앞뜰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학계와 유관단체, 전국 시도지부장 및 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을 거행한다.
- 이날 선포식에서는 ‘대한민국 105년’을 상징하는 대형 대한민국 시계전광판을 ‘제막’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홍과 선생의 외증손 김유진 씨와 이유찬 선생의 증손 이종호 씨)의 ‘대한민국 정체성 선언문’ 낭독, 기념공연 등이 펼쳐진다. (*붙임자료1,2 참조)
- 강연과 대토론회도 잇따라 열린다.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 행사에 앞서, 3일(목) 오전 10시에는 광복회관 대강당에서는 일반인과 광복회원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과 대한민국 정체성’ 주제로 김용달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 10일(목) 오후 2시부터는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윤주경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제 78주년 광복절 계기 대한민국 정체성 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일반 시민들과 광복회원 등 3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학자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이

토론회는 광복회 유튜브 채널(@user-ug1ig7ji8h) '광복회 TV'로 중계돼 유튜브 회원들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붙임자료3 참조)

□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주독립의 나라로 대한민국답게 만든 그 출발점이 언제인가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행사의 취지를 알렸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려운 말도, 철학적인 말도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 왔으며 무엇을 지향하는 나라인가? 이것이 정체성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 이 회장은 특히 “오늘은 단기로 4356년이기도 하다며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고 강조한 다음, “일제침탈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계속되었으며 주권행사 어려웠던 일제 때도 나라는 있었다. 그러므로 강제병합은 ‘즉시무효’”라고 주장한다.

□ 또 “대한민국이란 국호나 태극기란 국기가 계승되었고 헌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 것이 대한민국이므로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었고, 오늘은 ‘대한민국 105년 8월 3일’이라면서 “이를 상기시키고자 오늘 광복회관 정문위에 ‘대한민국 연호’를 붙여서 국민여러분께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다! 1919년 3·1독립선언으로 대한제국이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민주공화정이 처음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었다”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갑자기 날라 들어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수립된 것”임을 명확히 한다.

□ 이 회장은 “우리 민족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수십만의 독립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것”이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폄훼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붙임자료4 참조) (끝).

※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1

대한민국 105년 선포 대형 시계전광판 사진자료



붙임2

대한민국 정체성 선언문 전문

- 하나. 우리는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여 세계에 선포한 ‘자유 민주 자주 평등’의 위대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 하나. 우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항일운동의 구심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역사적 계승임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독립운동 정신이 영광스런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무장해 조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
- 하나. 우리는 선열들의 독립투쟁을 폄하하고,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할 것임을 천명한다.
- 하나.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다.

대한민국 105년 8월3일, 서기 2023년 8월3일,
독립운동 후손 일동

※ ‘대한민국 정체성 선언문’ 낭독 학생

- 김유진 학생: 백석대학교 재학 중(홍파 선생의 외증손)

- 독립유공자 홍 파 선생 (1902.01.30~1977.09.26/건국훈장 애국장 1991)

평북 정주 사람이다. 1921년 오산중학교 재학중 ‘개혁공보’를 발행하는 등 항일운동을 시작한 이후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1927년 만주로 건너가 흥경지방에서 덕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정의부에 가입하였으며, 양세봉·김학규의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활약하였다. 1928년 11월 14일 '남만주청년총동맹'을 조직하는 등 계속 활동하다가 봉천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되었으며, 1년여 동안 옥고를 치른 끝에 기소유예로 출옥하였다.

1936년에 다시 북지로 건너갔으며, 1942년 8월 광복군의 간부가 된 김학규와 연락이 되어 화북지구의 지하조직과 초모공작에 전념하였고, 1943년에는 배경진·김광언 등과 화북지구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일군의 기밀을 탐지하는 등 광복군 소속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광복 후인 1945년 9월 9일에는 임시정부 화북대표부 주석 조강의 비서로 임명되어 교민을 선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정보 참고)

- 이종호 학생: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유찬 선생의 증손)

- 독립유공자 이유찬 선생(1894 ~ 1979/건국훈장 애족장 1990)

경기도 안성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최은식·홍창섭·이유석 등이 주동이 되어 전개한, 양성면·원곡면 일대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독립만세시위는 처음에는 양상면과 원곡면이 별도로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날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외가천리에 있는 원곡면 사무소에 모여서 만세시위를 벌이고, 면장을 선두로 내세워 횃불을 들고 양성면으로 행진하였다.

양성면과 원곡면을 가로지르는 고개에 이르러 이유석·최은식·홍창섭 등이 번갈아 가며 연설을 하고, 양성면내에 있는 주재소·우편소·면사무소를 파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이 양성에 도착할 무렵, 동향리에 있는 양성 경찰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 해산하여 돌아가던, 양성면민들로 구성된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합류하게 되어, 시위군중은 2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오후 10시경 경찰 주재소 앞에 도착하자,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와 숙직실을 불태워 버렸다. 다시 양성 우편소로 가서 그곳의 기물과 건물을 파괴·방화하고, 일본인 외리여수가 경영하는 잡화점과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용수지의 집을 파괴하였다. 다음은 양성면 사무소로 가서 서류와 기물을 파괴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치고 해산하였다. 이튿날 새

벽 4시에 원곡면으로 되돌아 온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원곡면 사무소의 건물을 파괴·방화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건조물 소훼·소요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정보 참고)

붙임3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토론회 개요

■ 개 요

- 일시: 대한민국 105년 8월 10일(목), 14:00~14:40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행사명: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 공동주최: 국회의원 윤주경, 광복회, 독립기념관

■ 대토론회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1부 사회자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1부 주제 발표	발표1	제1주제 발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발표2	제2주제 발표: '헌법적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 건립의 정통성'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 전)법제처장
	발표3	제3주제 발표: '국제법적의 견지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적 계속성'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부 사회자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라운드 테이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중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붙임4 이종찬 광복회장 인사말 전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주독립의 나라로 대한민국답게 만든 그 출발점이 언제인가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려운 말도, 철학적인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 왔으며 무엇을 지향하는 나라인가? 이것이 정체성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의 문화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1919년 3월1일 독립선언서에서 조선건국4252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단기로는 4356년이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왕조는 망하고 흥하고 반복됐지만 나라는 지속해 왔단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침탈하여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 해도 우리나라는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일제 강점으로 주권행사가 어려워도 나라는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목적은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로 다시 찾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기 위하여 조약을 맺었다 해도 이는 ‘즉시무효’입니다.

1919년 기미년 독립선언은 군주의 나라, 대한제국이 끝나고 국민의 나라 민주공화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자주독립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서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장 1조’에 처음으로 민주공화정이 채택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의 건국이라 했는데 우리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미 있었고 ‘대한민국’이란 공화정이 처음 헌장으로 채택되었다는 게 정답입니다. 제국이 민국으로 발전되었을 뿐 건국한 것은 아닙니다.

1945년 우리 선열들의 간고한 독립투쟁 한 결과와 연합국의 승리로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인사들은 건국했다고 고집하는데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도 건국이 아니라 정식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관보 1호’에 이때를 ‘대한민국 30년’으로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이란 국호나 태극기란 국기는 계승되었고 헌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 30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대한민국 105년 8월 3일’인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잊고 있었기에 이를 상기시키고자 오늘 광복회관 정문위에 ‘대한민국 연호’를 붙

여서 국민여러분께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은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그해 고종의 승하로 전 국민은 대한제국이란 왕정은 끝나고 민주공화정 시대가 온 것으로 받아드려 전 국민이 봉기했습니다.

3월1일 “오등은 자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3·1독립운동은 우리에게 자주독립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민족자결주의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3·1독립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혁명인 것입니다. 당시 2천만동포 가운데 100만명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며 46,000명이 일본 헌병과 경찰에 끌려가 7,600명이 살해됐습니다. 부상당하거나 구금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일제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은 우리민족은 총궐기했습니다. 그 결과 4월에 세계 곳곳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 모두가 민주공화제 정부였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상해 임시정부’, ‘연해주 국민회의 정부’, 그리고 서울 인천 지역 지하에서 13도 대표가 세운 ‘한성임시정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여럿 가운데 총리제를 채택한 곳, 대통령제를 채택한 곳 각각 있었는데 행정수반은 모두 이승만을 선출했다는 사실이 또한 놀랍습니다. 자연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수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19년 6월 18일 당시 이승만 박사는 일본국왕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국가원수에게 영어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에서 물러나라는 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박사는 ‘The President of Republic Korea’라는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근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관에서, 또 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에서 내세웠던 이승만 박사를 상기하여 나와 우리 광복회는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년이 6·25 북한 남침 정전 70주년이고 한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체제는 이승만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수완으로 이룩한 것이며,

동북아와 한반도는 이 동맹체제로 70년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70년 평화 기간을 이용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찬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기화로 또 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하여 '건국대통령'이다, '독재하는 왕이나 다름없는 대통령'과 같은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일본 식민통치로 공짜로 얻어진 것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억지 역사는 항일 독립운동을 의도적으로 부정, 폄훼하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뒤흔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왜 굳이 그분에게 덧칠합니까?

흔히 이승만대통령을 평하여 공7, 과3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독립운동가이고, 대일항쟁과 민주공화정에 앞장섰던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4·19직전 정권욕을 탐하는 대통령으로 끌어내리려 합니까?

이런 괴물기념관이 건립된다면 우리 광복회는 반대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사실이 세계의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은 대한민국의 발전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근원은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에서 온 것입니다. 이를 모른 채 바람 부는 대로 이념에 쫓겨 표류해서는 대한민국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최고 원로단체라면서 3·1 독립정신을 잊은 채 흐리멍덩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네 편이나, 내 편이나 하면서 좌다 우다 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가는 방향도 모른 채 허송세월로 광복회는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쫓대 없이 세류에 편승해서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1919년 기미년 독립선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48년 건국론은 이런 역사의 지속성을 토막 내고 오만하게 '이승만건국론'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

시도 중단됨이 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건국론 같은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국회에서 세우는 정부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 하였습니다. 나아가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뤄졌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입니다! 1919년 3.1독립선언으로 대한제국이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민주공화정이 처음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945년 민족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의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1948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정부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대한민국 30년’이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서기 2023년은 대한민국 105년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 105년 8월 3일, 광복회장 이 중 찬